

인도네시아 주요대학과 국제협력 강화

전북대, 인도네시아대학교 · 쾰방우난 자야 대학교 등 6개 대학과 교류... 유학생 교류 · 공동 연구 등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설 연휴 기간 인도네시아 주요 대학들과 기업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전북대학교는 인도네시아 최고 국립대학인 인도네시아 대학교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했다.

4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세계 16위의 경제 대국이자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동남아 경제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목표 실현을 위해 우수인재 육성을 정부 차원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학생 5천명 유치에 선언하고 나선 전북대가 인도네시아의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 국가 간 협력을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방문단 일행은 인도네시아대학교(UU)를 찾아 이 대학 헤리 헤르만시아(Heri Hermansyah) 총장을 접견하고, 공과대학, 경상대학, 인문사회대학을 중심으로 교환학생 교류를 통해 우수 학생들이 전북대 석·박사 과정에 입학하게 하는 등 우수인재 유치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복수학위제와 연구교류, 교수 및 교직원 교류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1~2주 단기실습 프로그램의 교환과 단기·중기 교수 간 하이브리드 강의 등을 통해 양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류 통상 분야를 비롯한 21개 사회사를 거느린 인도네시아 대기업 Pembangunan Jaya Group 산하의 사립대학인 쾰방우난 자야 대학교(UPJ)에서도 이 대학 유디 사뮤디아(Yudi Samudya) 총장을 접견하고, 경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설 연휴 기간 인도네시아 주요 대학들과 기업을 방문했다. 사진은 전북대 방문단이 쾰방우난 자야 대학교(UPJ)에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상대 및 심리학과를 중심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상호 인턴십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대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Feeling Korea'에 학생뿐 아니라 기업 임직원, 우수사원 및 가족들까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반도체, AI 집적, 나노복합소재, 탄소섬유, 신소재, 배터리 분야에서 협업을 희망하는 프레세티아대학교(UFM)에서는 공식 MOU 체결을 논의하고, 교수 간 공동연구, 복수학위(Double Degree) 과정 운영 및 실험실 단기 파견 코스 등의 협력 추진을 약속했다.

30일에는 인도네시아의 '빅5' 대학 중 하나인 보고르대학교(IPB)에 방문해 농생명대 및 수의대의 교류를 우선

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스마트팜과 연계한 양 대학의 기계공학 및 화학공학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1~2주 단기실습 프로그램, 교환학생 규모(30여명)확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와의 연구 교류 및 공동 강의 개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MOU를 체결한 잇따라 야가톨릭대학교(UAJC)도 방문에 올 2학기부터 교환학생과 석·박사 장학금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해 우수 학생들의 전북대 입학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의 명문 사립 대학 비누스대학교(UEN)와는 이번 방문 기간에 MOU를 체결하고 컴퓨터사 이언스과 전자정보학과, 경상대학 분야와 교류 논의했다. 또한 교환학생,

공동연구, 단기 실습 프로그램 상호 교환 등을 약속했다. 특히 남원글로벌 캠퍼스에 설립 예정인 글로벌커머스와 호텔관광 분야에 적극적인 교류와 협조를 약속했다.

한편 양 총장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기업 대표들과도 직접 만나 학생들의 글로벌 취업 확대와 지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쳤다.

양오봉 총장은 "역동적인 경제 성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전북대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체결한 협약과 논의들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인재들과 함께 열어 갈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4일 전주병원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외국인 유학생 의료 서비스 지원

전주대, 전주병원과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4일 전주병원(병원장 태형진)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주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심영국 국제교류원장과 전주병원 이재백 경영기획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의료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의료 혜택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제교류원 심영국 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안정적인 학업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이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병원 이재백 경영기획원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건강을 걱정하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지역 사회와 협력해 유학생들의 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2025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

6개 권역에 시험장 설치

17~21일 응시원서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누리집(www.jte.go.kr, 알림마당-고시/공고)에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시험은 거주지와 가까운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6개 권역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1권역은 전주·완주·김제, 2권역은 군산, 3권역은 익산, 4권역은 정읍·고창·부안, 5권역은 남원·순창·임실, 6권역은 진안·장수·무주이며, 시험장 설치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진안이다.

응시원서 현장접수 기간은 오는 17~21일까지이며, 온라인 접수는 1일 단축된 20일까지다. 온라인 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지원 가능하다.

현장 접수의 경우 초졸·장에 응시자는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중졸·고졸 응시자는 응시 희망 지역의 6개 권역 교육지원청(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진안)에 각각 방문 접수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서비스 누리집(https://kged.go.kr)에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후 접수 가능하다.

귀국자 학력인정자 및 재소시설 응시자는 본청 창조나래 2층 접수처에 방문해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6개 권역 중 1 곳을 응시 희망지역으로 표기해야 하며, 최종학력증명서·증명사진 2매·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시험 장소는 3월 21일 공고되고, 시험은 4월 5일 치러진다.

이성기 교원인사과장은 "전북교육청의 6개 권역 시험장 확대는 지난해 상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며 "향후에도 검정고시 응시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올 중점 추진 사항 등 확정

학교운영위원 역량 강화 등

학생의회 등과 함께 하는

정책협의회 등 사업계획도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최정열)는 4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2025년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사회 및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14개 시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과 사무국장,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2025년 중점 추진 사항과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2025년 중점 추진사항으로 △학교운영위원 역량 강화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행복한 교육공동체 구현 △23대 학운협 구성을 통한 학교운영위원회 발전방향 모색 등이다.

이와 함께 △학생의회 등과 함께 하는 정책협의회 △3월 신학기 캠페인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4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2025년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사회 및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전체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학운협 임원 연수 및 차기 임원 선출 등의 연간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최정열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공동체의 중심이 돼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전북교육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장은성 기자

이리백제초, IB 후보학교 승인받아

도내 9번째... '스스로 선택하는 어린이' 등 목표

익산 이리백제초등학교가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IBO)로부터 후보학교 승인을 받았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이리백제초는 '스스로 선택하는 어린이, 함께 배우는 교실, 더불어 즐거운 학교'라는 목표 아래 학부모들의 관심 속에 교직원들이 합심해 관심학교를 운영해 왔다.

IB 후보학교는 개념 기반 탐구학습 등 학습 모습의 변화뿐만 아니라 학교 전반의 문화와 운영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IB 후보학교 승인으로 IB 월드스쿨에 한 발 더 다가선 이 학교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IB 프로그램으로 학교 교육이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도내 IB 후보학교는 9개교로

늘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전북지역에서 IB 운영학교가 안정적으로 월드스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IB 프로그램 설명회·IB 교사연구회 운영 △교원 역량 강화 연수 △IB 프로그램 도내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IB 후보학교 강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글로벌한 학습 환경과 미래지향적인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IB 교육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월드스쿨 인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설 · 한파 대비 비상대응체계 가동

전북교육청, 상황관리전담반 구성... 재해 취약지역 피해 예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서거석)은 대설·한파 대비 비상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서해안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긴급 상황관리전담반을 꾸렸다.

특히 △등·하교 시간 조정 △단축수업 △교육시설 점검 △등하굣길 안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상황관리전담반은 기상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주야간 비상근무를 통해 재난상황 접수 및 긴급시설 복구 지원을 하게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주 도내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돼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중등교사 정기인사 발표

3월 1일자... 총 1370명 규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4일 2025학년도 3월 1일 차 중등교사(수석·영양교사 포함) 인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총 1,370명 규모로 중등 수석교사 임용 및 재임용 2명, 시·군 간 전보 1,076명, 국립학교 전·출입 50명, 정년퇴직 74명, 명예퇴직 106명 등이다.

중등교사 인사는 1차 지역 발령·2차 학교 발령·3차 신규교사 발령 순

으로 진행되며, 2차 발령과 3차 발령은 각각 오는 10일과 14일 예정돼 있다.

한편 초등교사 및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오는 6일 단행될 예정이다.

이성기 교원인사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지원하고, 교원들이 교육현장에서 최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학생 해외연수 정책설명회

올해 운영계획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도내 초·중·고교 교장 및 교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국제교류수업 및 학생 해외연수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국제교류수업 및 학생 해외연수 정책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 운영 계획을 안내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000명에게 학생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본청 11개 프로그램에 1439명, 직속 기관 및 교육지원청 24개 프로그램에 1561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